

제목: "변화산에서의 경험"

말씀: 마태복음 17장 1-1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그 곳에 더 있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사역을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 1)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_\_\_\_\_ 이시다.
- 2) 예수님은 산을 \_\_\_\_\_ 가신다.
- 3) 예수님은 \_\_\_\_\_ 를 지시려고 오셨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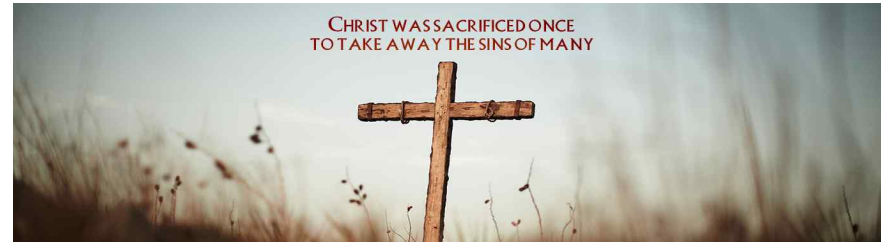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사순절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 President
- \* 찬양 ..... 다같이  
Praise .....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 All Together
- 성경말씀 ..... 마태복음 17장 1-13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Matthew 17: 1-13 신약 28 페이지 ..... President
- 말씀 ..... "변화산에서의 경험" ..... 김성민 목사  
Message Let us follow Jesus ..... Rev. Kim
- 특별찬양 ..... 김성정 전도사  
Special Praise ..... Pastor Faith Kim
- 헌금/기도 .....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 All Together
- \* 축도 ..... 설교자  
Benediction .....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잡초)

이번 겨울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추웠던 것 같다. 게다가 늦게 내린 눈이 며칠 발목을 잡아서 일을 못하게 된 것은 물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바쁘게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며칠 전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잔디 옆에 흙으로 덮인 땅이 녹색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흙만 있어야 할 곳인데 다른 것들이 있었다. 무엇인가 가까이 가서보니 잡초들이었다. 나의 생각에는 아직도 겨울인데 땅은 벌써 봄인 것이다. 그리고 뒤뜰로 가보니 겨울 마지막에 늘 피던 동백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이 아닌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소식을 나만 모르고 있었다 보다. 다른 꽃들과 나무들을 보니 싹이 나오려고 막바지 준비 중이었다. 내가 너무 내 일만 생각하고 살았는가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에 여유 없는 생활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봄은 오고 있었다.

전염병의 문제로 늘 두렵고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보통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은 봄이 오지 않겠는가? 백신 주사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의 결곡이 곧 오지 않겠는가? 과학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대로 그냥 두시겠는가? 봄이 오는 것 같이 회복의 시간이 곧 오리라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회복의 시간을 준비하라고 하신다. 그 부흥의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시작 되리라 믿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내 일에 묶여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은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누가복음 5장 25-26절)라고 전하며 소망이 있다고 전한다.

전염병 문제가 해결 되는 날이 소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회복이 일어나는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 때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뒤뜰에 벌써 자라고 있는 잡초 약을 이번 주에는 꼭 뿌려야겠다. 막 자라려고 할 때에 제대로 뿌리지 않으면 몇 달을 고생하기 때문이다. 올해도 한 발 늦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영적인 생활만큼은 한 발 늦는 삶을 청산하고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부지런한 일꾼의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걱정은 사라진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2. 기도의 삶

####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기 위하여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열심히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미국과 한국의 안정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교회 이전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Silk Wave 선교회: 선교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 4. 2021년 달력

새해 달력이 남았습니다. 필요한대로 가지고 가시고 교회를 알리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더 가지고 가서서 선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5. 생명의 삶

생명의 삶 3월호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받아 가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6. 3월의 행사

종려주일	3월 28일(주)	
고난주간	3월 29일(월) - 4월 3일(토)	
특별 기도회	3월 30일(월) - 4월 2일(금)	오후 9시 30분, 생방송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3일(토)	오전 6시 (교회)
부활주일	4월 4일(주)	

###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